

‘공익’ vs ‘수익’ …광주시-신세계, 복합쇼핑몰 개발 갈등

신세계, 주거시설 면적 16만5000여㎡→25만4000여㎡ 변경 요구
광주시, 주택보급율·미분양주택 고려할 때 확장 불가능…협상 난항

‘골재도시 광주’의 꿈 실현을 위한 광주시 계획의 한 축인 일명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이 좌초 우려가 제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업이 멈춰선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 속 주거복합시설의 면적에 대한 협상 난항이다. 광주시는 주거 공급 등의 공익을 위해 주거복합시설의 확장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 협의 내용의 변경없이 사업 제안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께 신세계 측은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을 위해 광천 터미널 부지를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준비했다가 포기했다.

당초 협상 난항의 이유로 세대수 증가 여부가 문제라는 말이 돌았다. 광주시와 신세계는 516세대로 주거복합시설에 대한 사전협상을 진행했으나, 신세계 측이 800세대로 변경을 요구해 협상이 교착됐다라는 것이다.

이에 280여 세대의 증가 여부가 사업이 멈춰 선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주거복합시설의 면적이 근본 원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세대수는 신세계 측이 516세대를 언급했을 뿐이지, 협상대상지 신청 기준은 ‘면적’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신세계 측은 사전협상에서 주거복합시설 건축 연면적으로 19만 8003㎡(근린공간 포함)을 제시했다. 이중 실제 주거시설 면적은 16만 5000여㎡(5만여평)이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주거시설 면적 기준 25만 4000여㎡이 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없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서구 광천터미널 일대인 일신·전남 방직터 내에 개발 중인 주거시설과 광천동 일대 개발 중인 주거 시설을 포함하면 1만 세대가 넘어 주거면적을 더 늘릴 수는 없어 신세계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마디로 과잉 공급이라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광주 주택보급률은 105.2%이고, 미분양 주택도 5728세대로 주택공급의 민감성을 고려했고, 또 부동산 시장도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가 사전협상 면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당초 주거복합시설은 한 세대로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난해 일본의 복합시설 등을 견학한 후 최소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 사전협상을 진행해 면적을 확정된 것”이라면서 “당초 사전 협상을 원칙적으로한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세계 측은 “당초 주거복합시설에 대한 사전협상시 광주시가 추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 믿고 사전협상을 진행했지만, 이후 이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제안서 제출 전 협상을 통해 주거복합시설에 대한 협상부분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신뢰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제안하는 사업조정협의회 협상은 최종협상에 해당해 협상 테이블에 앉기전 일정부분



29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광주시 서구 광주신세계백화점과 광천 터미널 일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면적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세계가 진행하고 있는 주거시설의 타겟층은 프리미엄 주거로 일반 주거와 달라 광주시의 주거정책과는 겹치지 않는다는 것이 신세계의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사업 백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입점)은 광주시민들과 약속을 한 사안”이라면서 “신세계 측에서 우리 사전 협상 논의 충분히 된 거에 기초해서 접수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백지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물로 밝혀진 보물…법전 ‘대명률’ 지정 취소

국가유산청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법률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지 판결과 형 집행을 고려한 후속 처리”라고 밝혔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

한 자료로 꼽힌다. 조선시대 법률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그러나 보물로 지정된 지 약 4개월 만인 그해 11월 경찰이 전국 곳곳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둑꾼과 절도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난당한 장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립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는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며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신청자가 제출한 유물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날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北, 남북 화해 상징 노래 ‘반갑습니다’ 금지

교도통신 “한국 주적 규정 이유”

북한에서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노래로 유명한 ‘반갑습니다’의 공연이 금지됐다고 일본 매체인 교도통신이 29일 북측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서 (이 노래가) 공연 무대에서 제외됐다”며 “북한 여성들이 일하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도 이 곡이 공연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반갑습니다’는 1991년 보천보전지악단에 의해 발표된 뒤 남북 교류 행사에서 자주 공연되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북한 노래다.

북한은 지난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작년 1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북한은 자국 국가인 ‘애국가’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꾸는 등 ‘삼천리’ 표현조차 빼버렸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시,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변경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금융취약계층 고충 해결

광주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 운영한다.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시청 1층 민원실에 위치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시민들의 채무와 금융관련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금융복지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들의 금융문제 해결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단순 채무상담 기능을 넘어 심층상담, 서민대출,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채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상담 이후 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매주 목요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상주해 미소금융,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직접 신청받아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전산망을 연계해 보증상담예약 등도 지원한다.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운영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고, 행정복

지센터에서는 금융상담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 양방향 상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기능 강화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서민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센터 명칭과 함께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자립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는 지난 2013년 12월 개소 이래 채무조정, 서민대출, 주거·복지상담, 관련기관 연계 금융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까지 1만5890여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5년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임의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식 4,500주를 소각(1주당 지급하는 금원 245,809원(액면가 10,000원) / 자본감소후 주식수 60,500주(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공고게제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 회사에 주권을 가진 사람은 주권을,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주식회사 스카이장례예식장
광주광역시 광안구 수완동 213-6
대표이사 박 화 자

상속확정승인(심판)공고

사 건 : 광주가정법원 2025년3603 상속확정승인 청구인 : 강성룡 (1994. 1. 21. 생)

주 소 : 시흥시 서울대하로264번길 26-33, 1216 (배곧동, 다인로얄팰리스배곧6차)

피상속인: 망 강이차(1953. 5. 29. 생) 2025. 3. 20. 사망

주 문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강이차의 재산 상속을 함께 있어서 한 2025. 4. 14. 자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이 유 : 위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망 강이차로부터 일반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수증을 받은 자는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까지 청구인의 주소지로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가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공고인(상속인) 강 성 룡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취칙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정화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자재)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월별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융자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73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경 266-1920 • 북광주 525-3761 • 안 산 571-7658 • 용 통 433-1503	• 문 통 266-1960 • 신 만 222-9171 • 오 치 266-7601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북 부 225-6001 • 충 정 222-8171	• 동 명 222-9054 • 동 양 222-9054
남 구	• 남 부 673-6836 • 북 선 673-6836 • 진 월 671-7276	• 백 은 651-1833 • 송 화 675-6605
서 구	• 광 천 382-5788 • 서광주 369-1625 • 치 평 376-0511 • 화 정 369-1625	• 신 무 372-2352 • 문 천 376-7153 • 평 양 603-0311
광안구	• 문 남 952-1687 • 형 단 973-2900 • 광 산 944-0444	• 월 곡 959-1920 • 하 남 955-0451

신탁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탁**